

참여연구원 칼럼



마음을 ‘방법’으로 분단된 마음의 지도 그리기*

연광석 (북한대학원대학교)

일본의 사상가 미조구치 유조(溝口雄三, 1932~ 2010)는 지금까지 “중국 ‘목적’적인 중국학은 세계를 방법으로 중국을 보고자 했다”고 성찰하면서 기존의 구도를 역전시켜 “방법으로서의 중국”을 제안한 바 있다. 타자에 대한 인식을 ‘세계’라는 이미 주어진 정답 아래로 환원하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타자를 ‘방법’으로 삼아 수평적인 관계설정 속에서 타자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부단히 형성되는 세계사의 과정에 서로가 함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조구치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을 ‘보편’을 적용하기 위한 대상으로 본질화하는 일본 사상계의 지적 식민성을 문제 삼았던 것이다. 즉, ‘타자’를 이해하는 방식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어서 타자를 외부의 고정된 잣대로 파악하는 주체는 관계성의 논리 보다는 위계성의 논리에 따라 비윤리적 역할을 욕망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지난 2017년 6월 북한대학원대학교 ‘남북한 마음통합 연구센터’(센터장: 이우영)가 신작 『분단된 마음의 지도』(사회평론)를 출간했다. 이 책은 2016년 출간된 바 있는 『분단된 마음 잇기』(사회평론)의 후속작으로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포착되는 북한 사람들의 ‘마음’에 주목하여 ‘분단’ 현실의 이해와 분단 극복을 위한 새로운 사유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거대담론이나 당위론 혹은 이념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을 도전적으로 시도”함으로써

북한학과 통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큰 포부로 이해된다(‘머리글’에서).

특히 이번 저작은 ‘방법으로서의 마음’을 전환적인 문제의식으로 전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미조구치의 이야기를 변주하여 이해하자면, 북한이라는 대상에 접근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성’ 또는 ‘개념적 인식’을 방법으로 북한이라는 ‘목적’에 접근해왔던 기존의 연구경향이 가진 한계에 대한 성찰로서 ‘방법으로서의 마음’이 제시되고 있다. 북한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접근해서 획득된 북한에 대한 인식으로는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전환의 정세에서 북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분단된 마음의 지도』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공동 연구의 단계적 성과물이다.

분단 이후 북한에 대한 우리의 사회과학적 인식은 어찌 보면 경직되고 고루한 잣대로 ‘북한’을 타자화해온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 ‘북한’을 타자화한 결과 우리에게 북한은 건조한 개념적 구성물이 되거나 이념적 적대를 재생산하는 재료 이상일 수 없었다. 나아가 우리 사회 안팎에 존재하는 ‘북한이탈주민’, ‘재일조선인(자이니치)’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단체제의 주체들과 공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볼 때, 정세 변화에 따른 남북관계의 역동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도, 남과 북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 전환에 있어 ‘최종심급’이라 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한 고민은 지속되어야만 한다.

참여연구원 칼럼

2016년 출간된 『분단된 마음 잇기』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한 내 북한 이탈주민의 주거공간과 일터, 남한 이민자와 북한 이민자가 함께 사는 영국 뉴몰든 코리아 타운, 개성공단 등과 같은 남북한 접촉시대에서 나타나는 남북한 마음통합의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 이번에 출간된 『분단된 마음의 지도』는 ‘마음 잇기’라는 접근의 적실성을 확인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남과 북의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서고자 한다.

‘마음’을 경유해서 다시 본 ‘북한’은 어떤 ‘북한’일까? ‘남한’ 사람들의 마음과 ‘북한’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같고 다를까? 우리는 그들의 ‘마음’과 어떻게 ‘통’할 수 있을까? 『분단된 마음의 지도』에서는 남한과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방법’으로 삼아 단순한 체제통합을 넘어선 ‘마음 통합’의 조건을 고민하고 있다.

제1부는 북한 주민의 마음체계에 변화를 준 ‘결정적 사건’으로서의 ‘고난의 행군’, 북한 소설가 한설야의 평화의 마음, 북한 속어 ‘석끼’ 담론, 지배권력의 성 담론, 노동계급의 정체성 변화 등 북한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북한의 마음체계에 조금 더 다가가고자 한다. 특히 문학/예술 작품 또는 일상생활과 같이 사회과학적 틀에서 정형화되지 않는 풍부성을 갖는 텍스트들이 북한 주민의 ‘마음’에 접근하는 유력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제2부는 남북한 주민의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느끼는 현실갈등인식 등의 주제를 통해 북한적 마음에 대한 정량적 접근을 시도한다. 남북한 주민의 물질주의, 집단주의-개인주의에 대한 비교분석이 보여주는 바, 남북한 주민 모두

‘집단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남한 주민의 경우 ‘수평적 성향’이 북한 주민의 경우 ‘수직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며, 집단주의-개인주의 모두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 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남북한 주민 사이의 마음 통합과 사회 통합을 구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제3부는 ‘마음’을 어떤 실체가 아닌 ‘방법’으로 취함으로써 근대적인 이성 중심의 사고에 대해 비판하면서 북한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이해와 관계맺기의 방식과 관련하여 마주하게 되는 모순을 발본적으로 의제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자기민속지학을 원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타자와 연구자 주제 사이의 윤리적 관계 맺기에서 나타나는 다기한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록된 공동연구원 토론문은 ‘마음’을 경유해서 북한 사회와 주민을 새롭게 이해하고 대안적 관계 맺기를 고민해온 연구원들의 고민을 솔직담백하게 담고 있어 논문 이면에 존재하는 연구와 토론의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다.

남북한 접촉시대에서 남과 북의 마음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담았던 『분단된 마음 잇기』에 이어 이번에 출간된 『분단된 마음의 지도』는 분단된 남과 북의 ‘마음’ 속으로 좀 더 들어가고자 시도하고 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통하기 위해 길을 안내하는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 시작된 셈이다. ‘남북한 마음통합 연구센터’의 후속 행보가 주목된다.



* 본 칼럼은 <민족화해> 2017년 11월호(통권 89호)에 수록된 글의 원문입니다.

기획기사

북한 연구자들 “타자 중심 지원으로 분단체제 극복해야” : 북한대학원대학교서 지난 22일 ‘마음통합을 위한 통일교육’ 학술회의 개최**

사진, 글. 최종환 연구보조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국내 북한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분단체제의 시각을 넓히고, 남북통합의 방법론을 제시한 학술회의가 열려 눈길을 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는 지난 22일 본교 국제회의실에서 ‘마음통합을 위한 통일교육: 분단체제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충남대학교 통일교육사업단과 공동 개최된 이 행사는 70여 년 간 지속된 분단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 주민의 마음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한학은 물론 문화인류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해 토론의 깊이를 더했다.

“분단체제, 이념 스펙트럼 협소하게 만들어”



사진. 연광석 연구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가 발제를 하고 있는 모습.

제1세션에서는 연광석 연구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와 한준성 연구교수(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가 ‘분단체제론’이라는 주제를 놓고 열린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각각 박현채와 백낙청 선생의 학술적 성과를 토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방향을 제시했다.

연광석 연구교수는 “신식민·분단체제와 박현채의 ‘문학’ 콤플렉스”라는 글을 발표했다. 박현채(1934~1995) 선생은 ‘민족경제론’을 설파한 경제학자로, 대외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형 경제를 강조한 인물이다.

연 박사는 박현채 선생을 ‘당대의 역사적 중간물’로 설정하고, 1980년대 지성사적 전환과정에서 구체화된

그의 사상적 고뇌를 살폈다. 연 박사는 “‘내전/분단’의 조건에서 1980년대 남한은 내전 중의 극단적 상호폭력이 남긴 트라우마와 강력한 반공주의로 북한 문제는 공개적으로 토론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현채 선생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1980년대부터 ‘민중문학’ 논쟁을 전개했다”며 “경제 학자로서 박현채가 문학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사상 실천의 문제를 확인하는 일은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기획기사

이어 한준성 연구교수가 “분단체제론과 이민사회”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백낙청(1938~) 선생이 강조한 분단체제론을 제시하며, 냉전체제 해체라는 대외적 변화 속에서 분단현실과 그 성격을 살폈다. 백낙청 선생의 분단체제론은 ‘세계체제-분단체제-남북한체제’라는 삼중구조도로 보고, 세 체제의 상호작용을 주목한 것이 특징이다.

한 연구교수는 “분단체제는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동서 냉전체제 속에 있으면서, 한국사회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협소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분단이 고착되면서 정부의 핵심 기능인 분배와 노동, 인권, 다양성 논의가 설자리를 잃었다”며 “특히 한국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집단이 부재하고, 노동 없는 민주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대안으로 “사안을 균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주민의 관점이 필요하다”며 “한국에서 상당수의 이주민을 차지하는 동아시아 국가 출신 노동자들의 인식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끌어 올리는 한편, 한반도 문제를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 출신자,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제2세션에서는 김성경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와 강동완 교수(동아대학교)가 ‘북한이탈주민과 마음통합’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에 정착한 북한 출신자는 3만 명을 넘었다. 반공주의가 횡횡했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장했지만 탈북자를 위한 경제적·사회적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경 교수는 “그동안 한국사회는 북한 출신자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들을 진정한 이웃으로 생각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끄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탈북자를 ‘특별’하게 대우하는 이면에는 이들을 배제하는 시선이 자리해 있고, ‘구별 짓기’에 활용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 출신자는 한국사회에 발 딛는 순간부터 통제와 관리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군으로부터 자신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간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 정체성을 설명하지 못하면 ‘비국민’이라는 딱지를 달 수 밖에 없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었다.

이어 그는 “연대의 인정 행위를 구축할 때 비로소 북한 출신자와의 ‘사회 만들기’는 가능해진다”며 “결국 분단을 해체해 탈분단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동완 동아대학교 교수는 “국내 입국 탈북여성의 경계짓기”라는 제목으로 탈북자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과 이를 규정하는 단어를 집중 분석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북에서 남한으로 ‘직행’한 탈북민은 간접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탈북 이후 남한 사회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직행’ 탈북민과 ‘중국행’ 탈북민 간 경험 차이로 인해 서로를 불신하는 문제가 불거졌고, 사회적 위화감도 조성됐다. 한 예로 ‘직행’ 탈북 여성들은 남한 정부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 많지만 비교적 안락한 생활을 한 ‘중국행’ 20~30대 여성들은 불만이 많다는 점이다.

강 교수는 “특정한 사건으로 문제를 일반화 할 수 없지만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탈북민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탈북민을 규정하는 단어에는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둔 정부의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한편, 보다 타자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성과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The Discursive Origins of Anti-Americanism in the Two Koreas.
Asian Perspective 제41권 2호 (2017)**

In this article I explore the discursive origins of anti-Americanism or anti-American sentiments in the two Koreas, where the status of postcolonial states was pursued in different ways. I compare two early examples of stories that embodied anti-Americanism, based on discourse analysis in literary criticism: Jackals, written by the North Korean novelist Han Sorya, and Land of Excrement, written by the South Korean novelist Nam Jung-

hyun. I emphasiz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nti-Americanisms in terms of their respective discursive origins. Land of Excrement was reprinted in a North Korean Communist Party bulletin without the author's permission, and he was arrested in 1965. The incident symbolizes the antagonistic relations of the two Koreas as well as the implicit and unofficial linkage between South Korean civil society and the North Korean state.



최순미 (북한대학원대학교)

**마음의 통합을 위한 남북한 주민 의식 비교: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 21권 1호 (2017)**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살고 있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에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는 ‘내가 삶에서 성취한 것에 만족한다’, ‘나는 내 성격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직장동료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의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남한에서의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남한주민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서는 남한주민의 경제상황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남한주민의 건강 만족도 개선방안 마련, 북한이탈주민의 성취욕구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진학 지원, 남한주민의 경제활동 외 삶 보장, 통합적 마음을 위한 정책적 기획 마련 등의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연구단 동정



12월 9일(토) 한국문화연구학회 2017 가을 정기학술대회(주제: “익숙한 정치의 지형, 새로운 자본의 지형”,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한마음통합센터 특별세션”이 구성되어, 박세진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마음’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는가? ‘마음’ 개념에 대한 몇 가지 이론적 단상”)와 윤철기 교수(서울교육대학교, “동독사회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정치사회적 함의: 비판과 저항의 준거점으로서 이데올로기”)의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기획 세션1 - 한국의 우익,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연광석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12월 22일(금) 충남대학교 통일교육사업단(단장: 김학성 교수)과의 공동학술대회(주제: “마음통합을 위한 통일교육: 분단체제와 북한이탈주민”, 북한대학원대학교)가 개최되었습니다. 김학성 교수의 개회사와 이우영 교수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학술대회는 “분단체제론”세션에서 연광석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과 한준성 교수(한양대학교)의 발표와, “북한이탈주민과 마음통합”세션에서 김성경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와 강동완 교수(동아대학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면의 기획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험과 실천



12월 12일(화) 극동문제연구소 국제 학술회의(“변화하는 북한: 미디어, 문화 그리고 일상”)의 사전 리셉션(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 오후 8시)이 개최되었습니다. 사전 리셉션에서는 영화 “Liberation day(감독 : Ugis Olte, Morten Traavik)”이 상영되었습니다.

네트워킹 활동



12월 22일(금) LW 컨벤션센터에서 17-18 제2차 S나 네트워킹 통합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총인원 207명이 참여한 금번 심포지엄에서는 본 사업단의 박아람 연구보조원이 “북한 핵 보유국지위의 허용요인 연구 - 핵 확산 전략이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장철운 박사(극동문제연구소)의 토론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12월 26일(화) 연구센터 정기 콜로키움(북한대학원대학교 대회의실, 오후 5시)이 진행되었습니다. 12월 콜로키움에서는 공동연구원 권금상 박사(북한대학원대학교)가 “남북미디어의 탈북인/탈남인 서사”를 주제로 발제 하였습니다. 토론에서는 ‘미디어 서사의 복잡성 및 다양성 차원의 고려’, ‘분단체제 공고화에 일조하는 현 미디어 서사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일정

2018/1/12~13(금~토) 제주도에서 본 사업단의 1차년도 연구기반조성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워크숍 주제는 “마음체계 통합의 자원과 장애 요인: 남북한 갈등의 중층성 분석”으로, 사업단 참여연구원들의 연구문제 발제 및 교차토론을 실시하여 개별 연구문제의 심층화와 체계적·효율적 연구 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더해 사업단 연구보조원들의 연구 역량 증진을 위한 학문후속세대세미나가 함께 진행됩니다.

2018/1/12(금) 제주평화연구원과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사업단의 공동좌담회가 개최됩니다. 본 좌담회에서는 “2018년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이우영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와 김갑식 박사(통일연구원)가 각각 사회, 경제, 정치 영역에서의 발제를 맡고, 제주평화연구원 소속 연구진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8/1/27(금) 본 사업단의 국제 워크숍(주제(가안): “사회통합의 이론과 역사 - ‘마음통합’의 문제설정”)이 개최됩니다. 해외 공동연구원을 비롯한 본 사업단 소속 연구원들의 학술발표와 토론이 있을 이번 국제 워크숍에서는 사업단 연구 의제인 ‘남북한 마음체계 통합기제의 이론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독일, 중국, 일본 등지에서 연구 활동 중인 공동연구원들과의 학술교류를 증진하는 자리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2018/1/5(금), 19(금) 본 사업단 학문후속세대세미나가 실시됩니다. 5일(금) 세미나에서는 최순미 박사(북한대학원대학교)의 “이미지 이론”에 대한 발표가, 19일(금) 세미나에서는 연구보조원 정고은(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과 김민지(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의 연구문제 발표가 진행됩니다.

언론 속의 심연북한연구소

인터뷰

북한 조선중앙TV의 모든 영상이 16:9 비율의 HD급으로 수신되고 있습니다. 화질도 훨씬 선명해졌는데요.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신형TV의 보급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의) 핵심적인 송출이라든지 이런 방식이 디지털로 다 전환됐다고 봐야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북한이 해외 선전,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이 쪽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화면 송출하는 데 있어서 그 비율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우영, 북한TV 화질 선명해졌다…16:9 비율 HD급으로 수신/ 연합뉴스 2017.12.0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5일 <2017-2018년 격변의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이란 주제로 제60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양문수 교수는 “현재 북중무역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장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지만, 본격적인 대북제재 시점을 지난 2월 중국 정부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 이후로 봤을 때 지금은 8~9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라며, “올해는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크지만, 제재의 효과를 외부에서는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양문수, “북, 핵무력 완성 ‘입구’ 도달. 제재에도 ‘질량적 강화’ 지속할 것”/ 통일뉴스 2017.12.0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연구소 정산홀에서 “변화하는 북한: 분단, 대중 문화, 그리고 일상”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대 통일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시장화 현상과 외부 문화 유입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북한 사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북한의 문화·일상’…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학술회의/ 노컷뉴스 2017.12.13.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연구학회가 15일 이화여대 포스코관에서 주최한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 북핵시대의 남북한과 평화의 모색’ 주제의 동계학술회의에서 김정은 체제의 경제개혁 조치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시장 원리를 북한 경제시스템에 합법적으로 편입시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개정된 기업소법에서는 기업의 경영권이라는 새로운 개념·범주가 등장했다”며 “종전에 국영기업에 부여된 것은 ‘경영상의 상대적 독자성’이었는데 이제는 국영기업에 ‘실제적인 경영권’이 부여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경영권을 구성하는 9가지 권리는 계획권, 생산조직권, 노력조절권, 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 무역·합영·합작권, 재정관리권, 생산물의 가격제정권 및 판매권”이라며 “이는 모두 개정된 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문수, 전문가 “北 경제개혁 조치, 시장화 크게 촉진할 것”/ 연합뉴스 2017.12.15.

언론 속의 심연북한연구소

국내 북한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분단체제의 시각을 넓히고, 남북통합의 방법론을 제시한 학술회의가 열려 눈길을 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는 지난 22일 본교 국제회의실에서 ‘마음통합을 위한 통일교육: 분단체제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충남대학교 통일교육사업단과 공동 개최된 이 행사는 70여 년 간 지속된 분단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 주민의 마음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한학은 물론 문화인류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해 토론의 깊이를 더했다.

북한 연구자들 “타자 중심 지원으로 분단체제 극복해야”/ 오마이뉴스 2017.12.23.

칼럼

연일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대북제재는 북한 ‘체제’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의 효과성이나 결과에 대한 논의는 언제나 ‘체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국가의 보호는커녕, 국제사회의 제재와 강압적 국가가 만들어내는 이중 착취 구조에서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분단은 우리가 북한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감각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철학자 레비나스가 말했던 것처럼 가장 연약한 “얼굴”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타인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줄 메시아다. 어쩌면 이들의 그 고통스러운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타자를 인지조차 할 수 없게 된 한국 사회의 절름발이 감각과 윤리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대북제재의 파고 속에 잊힌 북한 사람의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 그들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라도 말이다.

김성경, [야! 한국 사회] 대북제재와 숨겨진 ‘얼굴’/ 한겨레 2017.12.13.

칼럼 연재 : 책의 마음, 마음의 책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왜’ 기억하려 하는가?

오카 마리, <기억·서사>, 소명출판, 2004

베트남으로 가는 아시아나항공 비행기에서, 방현석의 작품 <존재의 형식>을 숙제를 하는 심정으로 읽어야 했다. 읽는 것으로부터 인식이 시작되곤 했던 ‘우리’에게 <존재의 형식>은 베트남을 찾아 가는 ‘우리’의 기억의 공유를 위한 매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상당 분량 쌓여 가고 있는 베트남 관련 서적 가운데 하필이면 방현석의 작품을 선택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리 속을 맴돌았다. 미포만 노동자계급의 삶과 운동을 ‘리얼’하게 재현(再現)하면서 현재와 미래로 시선을 던지던 방현석의 <존재와 형식>의 무대는 베트남이다. 그리고 그 곳에서 현재를 낚설어하며 한국의 ‘80년대와 베트남의 민족해방전쟁을 ‘동시에’ 회고한다. 이제 그의 시선은 과거와 현재다. 그의 표현대로, 그의 문학은 “뜨거운 반향이 있었고, 더러는 환호도 있었”지만, 그의 “문학은 시대와 깊이 불화해야 했”기 때문일까. 그 길항(拮抗)의 시선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미래는 어렵듯이 번지듯이 보일 뿐이다. 국가보다 작은 지역에서의 공동체적 삶과 국가보다 큰 지역인 동아시아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인식-반(半인가 반인가) 국가적 정체성(?)을 공유하고자 하는 ‘우리’는 왜 그 소설로부터 베트남에 몸을 실어야 했을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려 했는가.

일본인 학자 오카 마리(岡真理)의 <기억·서사>는 홀로코스트, 전쟁, 학살과 같은 폭력적 사건의 기억과 기억의 재현에 관한 ‘문제제기’로 가득 차 있다. 사건의 기억은 어떻게 해서든지 타자, 즉 사건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집단적 기억, 역사의 언설을 구성하는 것은 사건을 체험하지 않은 살아남은 자들, 타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사건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을까. 사건의 기억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는 사건이 이야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980년 5월 광주”의 기억이 공유되기 위해서는 광주에 대한 서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서사는, 본질적으로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서사가 언어를 매개로 표현될 경우 언어의 운곽 속에 완전히 담기지 않은 채 넘쳐흐르는 사건의 조각-언어가 현실에 대해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어긋남’ 또는 재현과 현실 사이의 시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어긋남’-이 있기 때문이다. 재현된 현실 외부에 누락된 사건의 잉여가 존재하고 그 잉여야말로 사건을 사건으로 만드는 요소일 수 있다. 다른 이유로, 누가 사건을 재현하는가, 라는 문제가 있다. 사건의 말할 수 없는 자체를 증언할 수 없는 한, 대부분의 서사는 사건의 외부에 있는 타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곤 한다. 종종 사건의 서사는 기억의 공유를 억압하는 장치로 기능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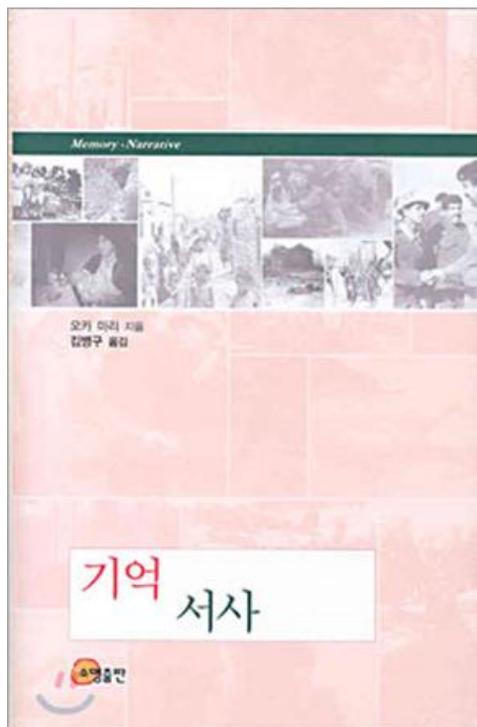
<기억·서사>는 ‘소설’이라는 문학 형식에서 불가능한 것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기도 한다. 모든 사건이 언어로 재현될 수 있다면 소설이라는 문학 형식은 불필요할 것이다. 근대사회에서 소설이 사라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사건에 언어로 재현할 수 없는 사실이 있음을 지시하는 기능 때문일 수 있다. “완벽한 리얼리즘”을 향한 ‘욕망’은, 재현 불가능한 현실이나 사건의 잉여 그리고 타자의 존재를 부인하는 행위와 결부되어 있음을, <기억·서사>는 다양한 텍스트-발자크의 아듀(adieu), 스피버그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선들러 리스트> 등등-의 분석을 통해 들추어내고 있다. 방현석의 <존재의 형식>은 어떤가. 베트남의 민족해방전쟁에서 같이 출발했던 300명의 부대원 중 295명이 죽고 자신은 살아남은 자가 되어 죽은 동료의 이름으로 시를 쓰고 있는 레지투이가, “우리는 공산주의를

칼럼 연재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를 살았어요”라고 할 때, 사건의 외부에 있는 타자들의 평가가 아니라 사건 그 자체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민족해방전사들의 삶의 흔적을 보게 된다. 레지투이는 개혁, 개방을 향해 나아가는 베트남에서 어긋남의 뼈격거림을 주류의 밖에서 “소수적 문학”으로 재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존재의 형식>에서 또 다른 기억의 축인 한국의 '80년대에는 1980년 5월의 기억도 그 기억에 기초하여 '80년대를 온몸으로 통과하려 했던 다수의 기억은 사라진 채 '전형적' 인간들의 기억의 충돌과 그 충돌의 미봉이 있을 뿐이다. 존재의 형식이 형식의 존재가 되어버린 형국이다.

우리는 왜 기억을 공유하려 하는가. 현재의 필요 때문인가. 기억의 공유는 사건의 당사자들이고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덜어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들에게 사건의 기억을 강요할 때, 보다 더 리얼하게 증언할 것을 요구할 때, <기억.서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이면에는 “고문의 논리”가 놓여 있을 수 있다. 기억의 정치학을 넘어서는 재현이 가능할 수 있을까. 객관적 시점으로

가장한 기억의 재현이 불가피하게 당파성을 산출하는 것처럼, 기억의 정치학이 없는 기억의 재현이 불가능하다면, 기억을 공유하려는 이유는 기억의 정치에 발을 디디려 하기 때문일까. <기억.서사>는 의심할 여지없이 자신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를 알고 있는 자, 즉 사건의 기억을 서사로 영유하는 자들에게는 기억의 공유가 불가능함을 말하고 있다. 국민국가주의가 가지는 근본적 한계에 대한 통찰이다. 미국이 '9-11'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을 보라. 미국은 타자와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강제하려 한다. 그 끝은 전쟁과 폭력이다. <기억.서사>는 기억을 사건으로 영유하려는 '난민(難民)'에게서 타자와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삶을 발견하려 한다. 난민의 정체성은 근대적 국제정치를 거부하는 힘이다. 그러나 재현의 불가능성 만큼이나 '난민됨'의 불가능성이 또한 존재하지 않을까. 베트남으로 향했던 '우리'는 기억의 정치가 아닌 기억의 연대를 이루려는 난민이 되고자 했던 것인가.



편집: 김민지 연구보조원, 이하연 연구교수